

지역관광자원의 공간적 분포특성에 관한 연구

엄수원

한국토지공사 토지연구원 동북아연구팀장
sweom@koland.co.kr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atial Distribution of Tourism Resources and the Typology of Tourism of Regions in Korea

Eom, Su-Weon
Senior Researcher, Koland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atial distribution based on tourism resources. This study consists of the following sections. (i) examines the theory of tourism resources and the previous studie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atial distribution of tourism resources and the typology of tourism regions. (ii)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atial distribution of tourism resources. (iii) analyzes regional classification is based on tourism resources and their characteristics, As a method of study, it employs multivariate statistical analysis generally used. Specifically,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atial distribution of tourism resources are clarified by performing the Principle Component Analysis. Next, the regional types is based on tourism characteristics are tentatively classified by the Cluster Analysis.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Region can be classified as three types ; The Culture-Inland Type, The Entertainment-Urban type, the Industry-sea side Type. On the basis of the result mentioned above, this study suggests the direction for tourism policy in the aspect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atial distribution and by types of tourism regions.

Key Words : regional analysis, tourism development, tourism Resource, regional classification,
지역분석, 관광개발, 관광자원, 지역유형화

1. 서론

경제성장과 소득수준의 향상은 여가선용에 대한 욕구의 증대를 가져와 오늘날 관광수요는 급속히 증대되고 있다. 관광산업은 오늘날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21C형 기간산업이자 녹색산업, 미래의 산업으로서 그 의미를 더해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역별 관광특성 및 잠재력에 관한 분석은 지역정책의 기반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연구는 특정한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제별 연구 등 개별지역의 관광현상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인데, 이는 개별지역의 관광현상을 자세히 관찰하고 분석하는데에는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연구결과와 비교할 수 없다는 단점으로 인하여 국토전체적인 측면에서의 관광현상을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즉, 개별지역에 대한 주제별 연구뿐만 아니라, 전국적 차원에서 지역별 관광특성 및 공간분포패턴을 비교분석함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관광자원의 지역적 분포와 구조를 규명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하며 이를 통하여 관광지역체계의 구분은 가능해 질 수 있을 것이다. 국토공간의 지리적 구성단위에 대한 공간적 분류 혹은 지역유형 구분은 모든 지역정책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관광자원을 대상으로하여 관광자원의 공간적 분포특성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관광지역의 유형화와 유형별 특성을 규명하는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국토공간상에 존재하는 관광현상에 대한 지리적 측면에서의 이해를 더해 줄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지역관광정책 수립에 있어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2. 연구동향

관광자원(tourism resources)은 그 범위가 대단히 넓고 기준이 모호하여 객관적인 개념정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관광활동을 원활하게 하는데 필요한 제반 요소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정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광자원의 유형도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자연관광자원, 문화관광자원, 사회관광자원, 산업관광자원, 위락관광자원, 관광편의자원 등 6가지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관광자원과 관련된 연구는 1980년대 이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크게 세가지 주제로 범주화 될 수 있다. 첫째, 관광자원의 유형화와 공간적 분포에 관한 연구, 둘째, 관광현상을 유발시키고 관광목적지를 결정하는 배경으로서 관광자원에 대한 인지 및 선호·해석에 대한 행태론적 연구, 셋째, 관광자원의 개발에 따른 경제적 편익분석 및 문화적·교육적·환경적·심리적 영향과 효과에 대한 연구동향을 들 수 있다.¹⁾ 연구목적에 따라 관광자원의 공간적 분포특성에 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먼저 Davis(1967)는 관광지의 기능적 중심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관광자원과 산업 등 두가지의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기능지수(functional index)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Gearing, Sward and Var(1974) 등도 관광자원과 산업의 두가지 변수를 통해 관광지역의 순위와 계층성을 확인하고 유형화를 시도하고 있다. Smith(1987;1989)는 다변량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관광자원의 지역적 분포패턴을 기초로 관광지역의 분류체계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際野信道는 도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관광대상물의 공간적 배치가 달라진다는 전제하에 관광자원을 도심의 자본집약형, 변두리의 중앙위치형, 원거리의 자연집약형 등

으로 특성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연구는 최근에 와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김병문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관광자원의 지역별 분포와 특성파악을 위하여 평균치, 표준편차, 입지계수, 변동계수 등에 의한 지역별 특화도를 조사함으로써 전국 관광지의 지역성을 밝히고 유형화하고자 하였다. 김재관(1989)은 영남권의 관광지역을 15개 관광권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 중심권역을 설정하고 있다. 황창윤(1992)은 요인분석기법을 통하여 우리나라 관광자원을 16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지역적 분포패턴을 규명하고 있다. 이정록(1998)은 광주전남지역 관광자원 및 관광환경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으며, 엄영숙(2000)은 자연관광지점의 특성 분석과 방문자 편익가치추정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관광자원의 공간적특성과 관련된 연구동향은 공간적·내용적 범위에 있어서 전문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계량적·실증적 연구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3. 연구분석 틀의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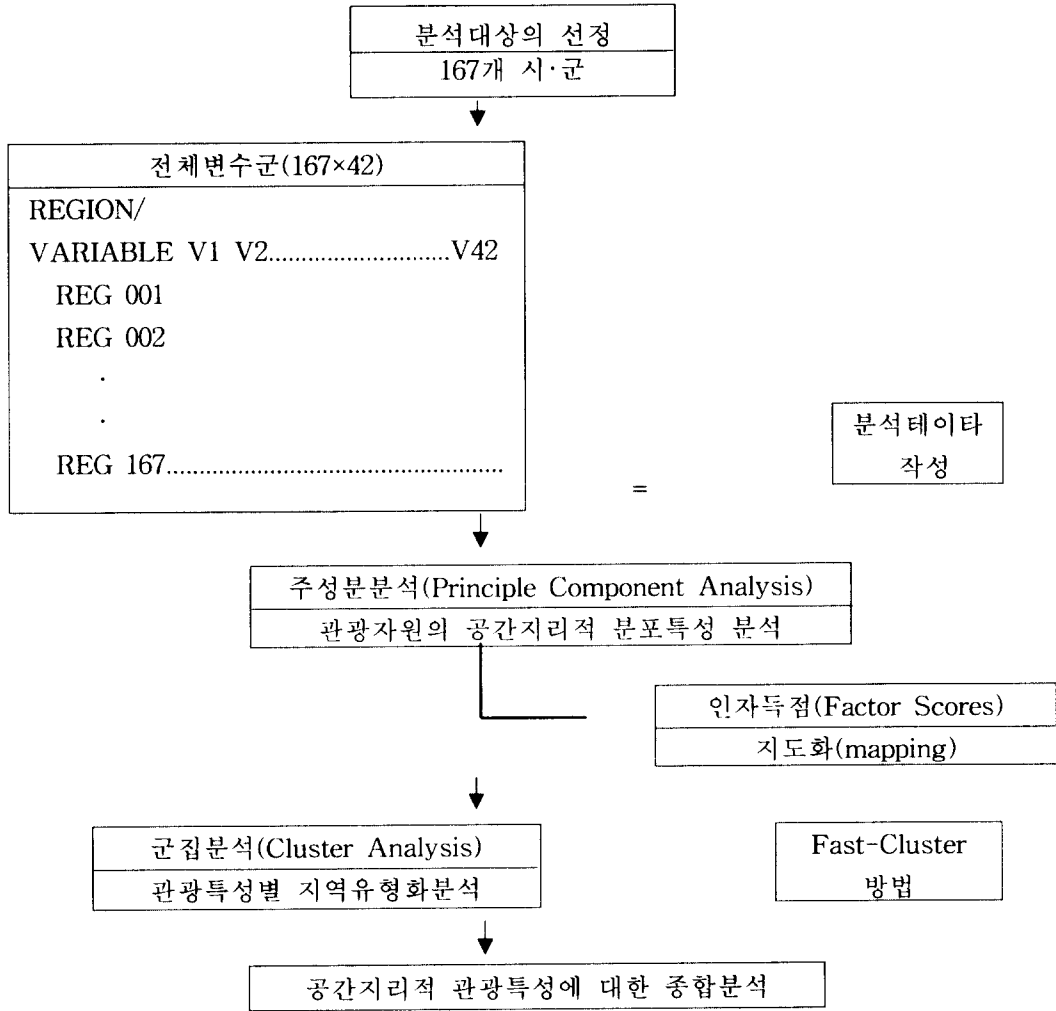
본 연구는 먼저 관광자원의 공간적 분포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방법과 군집분석(Cluster Analysis)²⁾기법을 이용하여 관광지역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군집분석기법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最適分離方法³⁾을 적용하였으며, 분석처리절차는 패스클러스터(Fast Cluster)⁴⁾방법을 이용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0년도를 기준년도로 하였으며, 공간적 범위는 우리나라 전체 167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용된 분석지표는 먼저 6가지로 분류된 관광자원유형을 기준으로 하여

자연관광자원의 경우는 산악관광자원·해안관광자원·내륙관광자원 변수군, 문화관광자원은 문화유산자원·종교자원·문화시설자원 변수군, 사회관광자원은 도시적자원·천연위락자원·종합위락자원 변수군, 관광편의자원은 숙박시설자원·이용시설자원·교통시설자원 변수군 등으로 세분류하여 구성하였다 <표1 참조>

한편 지표의 적용에 있어서 문제시되는 것은 각 지표간에 가중치(Weight)를 부여하는 것인데, 이에 관한 입장은 크게 두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첫째, 가중치 적용에 관한 이론적 지침이 없기 때문에 등가 가중치(equal weighting scheme)를 부여하는 입장이 주로 채택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의식이나 태도조사를 이용하여 가중치를 부여하는 일은 시간적·경제적으로 많은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둘째는 객관적 자료를 이용하여 가중치 체계를 실질적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방법으로서, 연동가중치체계(sliding weight system), 대응체계(correspondence system), 분류방법(taxnomic method), 주성분 분석방법(principle component analysis) 혹은 인자 분석(factor analysis)방법 등이 있다.

특히 주성분 분석에 의한 가중치 체계의 구성은 우선 수많은 변수들 가운데 그들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을 나타내는 인자부하량(factor loading)이 큰 항목들을 하나의 지표로 선택하게 되면 항목간의 공통성(communality)의 정도와 개별인자의 개별변량이 스스로 계산되어 이것을 가중치로 이용하게 된다. 이러한 방법은 분석과정에서 가중치 부여문제가 자체적으로 해결되면서 다양한 지표들의 차원성(dimensionality)을 적절하게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⁵⁾ 따라서 본 고에서는 주성분 분석방법을 이용, 가중치 부여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림1> 연구분석의 틀

<표1> 분석지표의 구성

자원유형	세부 유형	코드	변수명	단위	산정 방법	자료출처	
자연관광자원	산악관광자원	V1	자연휴양림	ha	-	한국관광연감 한국관광연감 도통계연보	
		V2	농골	개소	-		
		V3	임야율	%	임야면적/총면적		
	해안관광자원	V4	해안선길이	km	-	-	도통계연보
		V5	도서	개소	-	-	
	내륙관광자원	V6	유지용지율	%	-	유지면적/총면적	도통계연보
V7		하천용지율	%	-	하천면적/총면적		
문화관광자원	문화유산자원	국가지정	V8	국보	개수	-	도통계연보
			V9	보물	"	-	
			V10	사적	"	-	
			V11	천연기념물	"	-	
		V12	무형문화재	"	-		
		V13	민속자료	"	-		
		지방지정	V14	유형문화재	"	-	
	V15		무형문화재	"	-		
	V16		지방천연기념물	"	-		
	종교자원	V17	V17	민속자료	"	-	도통계연보
V18			종교용지율	%	종교용지면적/총면적		
사회관광자원	도시적 자원	V19	지역규모	천인	-	도통계연보 " " " 한국관광연감	
		V20	도시공원율	%	도시공원면적/총면적		
		V21	체육공원율	%	체육용지면적/총면적		
		V22	문화공간	개소	-		
		V23	박물관	개소	-		
	V24	향토유산자원	V25	민속예술행사 민속장난	행사수 "	-	한국관광연감
산업관광자원	-	V26	관광농업지	개소	-	한국관광연감 도통계연보 " 한국관광연감 "	
		V27	과수원율	%	과수원면적/총면적		
		V28	목장용지율	%	목장용지면적/총면적		
		V29	백화점	개소	-		
		V30	면세점	개소	-		
		-	-	-	-		
위락관광자원	고급위락자원	V31	스키장	개소	-	" 전국지도 한국관광연감	
		V32	골프장	개소	-		
	대중위락자원	V33	해수욕장	개소	-		도통계연보
		V34	온천	천평	-		
	V35	천연위락자원	V35	유원지율	%		유원지면적/총면적
종합위락자원	V36	운동휴양지구	개소	-	한국관광연감 "		
	V37	관광지	km ²	-			
관광편의자원	숙박시설자원	V38	관광숙박업	객실수	-	도통계연보 " "	
		V39	관광객이용시설업	업체수	-		
	이용시설자원	V40	여행업	"	-		
		V41	도로포장율	%	-		
교통시설자원	V42	철도용지율	%	철도용지면적/총면적	"		

4. 관광자원의 공간적 분포특성

선정된 42개의 지표와 167개의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하여 그 실측치의 값을 구하고 167×42의 자료행렬을 작성한 후 주성분

분석을 행하였다. 주성분 분석에 의해서 나타나는 구성인자의 수는 기본적으로 입력지표의 수와 같다. 그러나 주성분 분석의 목적이 다량의 변량을 압축시켜 복잡한 인자구조를 단순화시키는데 있으므로 인자구조를 설

〈표2〉 주요인자와 누적설명량

주요인자(Component)	고유치(Eigenvalue)	설명량(Proportion)	누적설명량(Cumulative)
1	12.630490	0.3007	0.3007
2	3.572963	0.0851	0.3858
3	2.526221	0.0601	0.4459
4	2.369171	0.0564	0.5024
5	1.929528	0.0459	0.5483
6	1.862376	0.0443	0.5926
7	1.714738	0.0408	0.6335
8	1.152222	0.0276	0.6610
9	1.153994	0.0275	0.6885
10	1.109056	0.0264	0.7149
11	1.035988	0.0247	0.7396
12	1.003537	0.0239	0.7635

명하는 구성인자는 일반적으로 고유치(eigenvalue)가 1.0이상의 인자를 공통인자로 추출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결과는 고유치(eigenvalue) 1.0이상의 공통인자가 12개 추출되었는데, 이는 입력된 42개의 분석지표의 약 1/4수준이며 이 추출된 지표가 설명하는 총변량은 전체의 76.35%에 달하고 있어 이 12개지표가 공간상의 지역특성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요인간의 구분을 뚜렷이 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의 결과로 얻어진 12개 공통인자로서 하여 바리막스회전(varimax rotation)을 행하였다. 한편 회전된 인자의 커뮤니티(Communality)는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설명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추출된 주요성분과 누적설명량, 주요성분구조 등은 <표2>와 같다.

4-1. 성분(Component)

'성분1'은 우리나라 관광구조의 체계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0.4이상의 부하량을 나타내는 지표는 모두 16개로 모두 正의 부하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성분은 국가지정 및 지방지정문화

재 등 문화관광자원의 분포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지역시장성도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 관광수요의 잠재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유추되며, 이로 인하여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여행업등의 관광편의자원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지역적 특성을 지닌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사회 및 문화관광자원 그리고 관광편의자원 측면에서의 비중이 높은 특성을 지닌 것으로 해석된다.

4-2. 성분 2(Component 2)

'성분2'의 설명력은 8.51%로 나타났는데, 이 성분은 교통여건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지역이면서 공원면적 및 종교용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적 특성을 지닌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지리적 특성상 임야면적이 상대적으로 적어 비교적 평야지대적 속성을 지닌 것으로 보여지며, 민속장날의 문화행사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적 특성을 지닌 것으로 해석된다.

<표3> 우리나라 관광자원 42개변수의 요인구조

지 표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Factor 5	Factor 6	communality
국보	0.94855						0.949513
보물	0.96645						0.960443
사적	0.69201						0.756183
천연기념물	0.46646						0.666032
중요민속자료	0.85927						0.841220
중요무형문화재	0.91544						0.860540
유형문화재	0.66755						0.777935
민속자료	0.61461						0.645794
박물관	0.92226						0.915485
지역시장성(지역규모)	0.91780						0.952291
문화공간	0.93309						0.957521
백화점	0.91443						0.902815
면세점	0.94715						0.930450
관광숙박업	0.93321						0.918912
관광객이용시설업	0.72676						0.726881
여행업	0.95026						0.964594
민속상난		-0.63784					0.655280
입아울		-0.48211					0.644409
종교용지울		-0.64804					0.487006
공원용지울		-0.72584					0.608879
도로포장울		-0.56358					0.614512
철도용지울		-0.76792					0.678275
스키장			0.64898				0.513477
골프장			0.82163				0.782771
체육용지울			0.68631				0.804981
운동휴양지구			0.64873				0.655160
지방천연기념물				0.72958			0.667337
무형문화재				0.69764			0.703076
민속예술행사				0.79325			0.690861
해안선길이					0.94511		0.919652
도서					0.94136		0.859980
자연휴양림						0.81231	0.707635
해수욕장						0.68411	0.591306

지 표	Factor 7	Factor 8	Factor 9	Factor 10	Factor 11	Factor 12	communality
과수원울	0.88190						0.787025
목장 용지울	0.82890						0.719156
농굴		0.58373					0.677163
관광지		0.88632					0.813998
온천			0.89917				0.846549
관광 농업지				0.66065			0.640989
유지울				0.75980			0.669782
한천울					0.76306		0.678134
유원지울						0.92425	0.885014

4-3. 성분 3(Component 3)

'성분 3' 은 6.01%의 설명량을 보여주고 있으며, 구성지표는 모두 정의 부하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성지표는 스키장, 골프장, 체육용지울, 운동휴양지구 등으로 구성되고 있어서, 성분3은 전원적인 특

성을 지니면서 위락관광자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적 특성을 지닌 것으로 해석된다.

4-4. 성분 4(Component 4)

'성분4' 은 5.64%의 설명량을 보여주고

있으며, 문화유산자원 및 향토유산자원과 관련된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정의 부하량을 보이고 있는데, 가장 높은 부하량을 보이고 있는 지표는 지방천연기념물, 무형문화재, 민속예술행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4-5. 성분 5(Component 5)

‘성분 5’는 4.59%의 설명량을 보여주고 있으며 해안과 관련된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 바, 임해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구성지표는 모두 정의 부하량을 보이면서 해안선길이, 도서의 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4-6. 성분 6(Component 6)

‘성분 6’는 4.43%의 설명량을 보여주고 있으며 구성지표는 모두 정의 부하량을 보이고 있는데, 자연휴양림, 해수욕장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성분은 산림관광자원과 해안위락자원의 특성이 강한 지역적 특성을 지닌 것으로 해석된다.

4-7. 성분 7(Component 7)

‘성분 7’는 4.08%의 설명량을 보여주고 있으며 구성지표는 모두 정의 부하량을 보이고 있는데, 과수원율, 목장용지율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성분은 과수목축업 위주의 산업관광적 특성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8. 성분 8(Component 8)

‘성분 8’는 2.76%의 설명량을 보여주고 있으며 구성지표는 모두 정의 부하량을

보이고 있다. 구성지표는 관광지, 동굴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자연형 종합위락자원의 특성이 강한 지역군으로 해석된다.

4-9. 성분 9(Component 9)

‘성분 9’는 2.75%의 설명량을 보여주고 있으며 구성지표는 온천의 단일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는 정의 부하량을 보이고 있는 바, 온천으로서의 지역적 특성이 강한 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4-10. 성분 10(Component 10)

‘성분 10’는 2.64%의 설명량을 보여주고 있으며 구성지표는 유지율, 관광농업지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성분은 자연형 산업관광자원의 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4-11. 성분 11(Component 11)

‘성분 11과 12’는 각각 2.47%, 2.39%의 설명량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자의 경우 하천율, 후자의 경우는 유원지율로서 각각 단일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두 성분 모두 정의 부하량을 보이고 있으며, 자연형 위락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지역군으로 해석된다.

5. 관광지역 유형화 와 유형별 특성

주성분분석을 통해 추출된 F1-F12의 12개 주성분에 대한 성분점수(인자특점:factor score)를 기초로 이루어진 군집분석에서 지역의 군집은 최종적으로 3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제1군집은 49개의 지역들로 그룹

<표4> 군집분석 결과

군집수	빈도수 (frequency)	RMS Std Deviation	Maximum Distance from Seed to Observation	Nearest Cluster	Centroid Distance
1	49	0.8963	8.9313	5	1.5073
2	28	1.0454	8.2181	5	1.8874
3	90	0.8412	8.6857	2	1.5073

화되었으며, 제2군집은 28개 지역, 제3군집은 90개 지역들로 그룹화되어졌다. 또한 군집들간의 공간분포패턴을 보면 1군집과 2군집이 공간상의 유사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군집의 유형이 2개의 군집으로 대분류될 가능성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3개의 군집으로 최종 분류되었다.

5-1. 제1군집: 문화/내륙형(49개군)

제1군집은 총 49개의 지역으로 유형화된 지역으로서 지역적 특성은 <표5>에서 보는 바와 같다. 먼저, 우리나라 관광구조의 체계를 가장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성분1의 경우를 보면 평균값이 -0.0284로 나타나 다른 군집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문화관광자원의 높은 분포도, 상대적인 지역규모성, 사회관광자원 및 관광편의자원 등의 종합적인 측면에서 관광잠재력이 비교적 우수한 지역군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준편차의 경우를 보면 0.31423으로 타 군집의 경우보다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군집내에서 지역간 불균형적인 분포패턴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통여건 및 도시공원 등 도시적특성의 비중이 높아 임야면적 등이 상대적으로 적은 특성을 보이는 성분2의 평균치값이 -0.3220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종합적인 관광잠재력은 내재되어 있으면서도 도시적 특성은 비교적 낮은 지역적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을 해석된다. 또한 해안관광자원과 관련되는 성분5

의 경우는 평균값이 0.3774로 가장 낮게 나타나 내륙적 특성이 강한 면을 보이고 있다. 과수목축용지 등의 산업관광자원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성분7의 경우도 평균값이 -0.236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자연형 종합위락자원과 관련이 있는 성분8은 0.213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온천관광자원으로 특성화되는 성분9의 평균값이 0.5051로 가장 높게 나타나 자연형 위락관광자원의 특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지역적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유지·하천 등으로 특성화되는 성분 10, 11, 12 등의 경우는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5-2. 제2군집: 위락/도시근교형(28개군)

제2군집은 총 28개의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공간지리상의 분포패턴을 보면 대체적으로 수도권 동북부지역 및 남부지역과 강원내륙지역 충남북부지역 등에 분포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대도시주변지역에서 많이 분포되고 있다는 지리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지역유형의 특성구조를 살펴보면 <표5참조> 먼저, 교통여건 및 도시공원 등 도시적특성의 비중이 높고 성분2의 평균값이 0.425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도시적 관광자원의 특성이 비교적 높은 지역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표준편차가 1.4340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군집내 지역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분3의 평균값도 1.276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전원적

〈표5〉 군집별 지역특성구조

군집평균 (Cluster Means)						
Cluster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FACTOR5	FACTOR6
문화/내륙형	-0.0284	-0.3220	-0.1886	0.2150	-0.3774	0.0369
위락/도시형	-0.0812	0.4255	1.2760	0.4284	-0.2328	0.1013
산업/해안형	-0.0954	0.0068	-0.2968	-0.2132	0.2982	-0.0392
Cluster	FACTOR7	FACTOR8	FACTOR9	FACTOR10	FACTOR11	FACTOR12
문화/내륙형	-0.2366	0.2132	0.5051	-0.4221	-0.4163	-0.2520
위락/도시형	0.0135	-0.2689	-0.2599	0.3828	0.0467	-0.1258
산업/해안형	0.1446	-0.0321	-0.1909	0.1280	0.2544	-0.0076
군집 표준편차 (Cluster Standard Deviations)						
Cluster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FACTOR5	FACTOR6
문화/내륙형	0.31423	0.88437	0.44820	0.69590	0.29728	1.36191
위락/도시형	0.28545	1.43460	1.82077	1.45779	0.36559	0.86996
산업/해안형	0.24429	0.80966	0.37312	0.90094	1.28585	0.80754
Cluster	FACTOR7	FACTOR8	FACTOR9	FACTOR10	FACTOR11	FACTOR12
문화/내륙형	0.31070	1.45284	1.66707	0.67550	0.67208	0.48558
위락/도시형	1.21361	0.50090	0.53221	1.27837	0.85629	0.52044
산업/해안형	1.16853	0.79639	0.30063	1.00088	1.11838	0.42001

특성의 위락관광자원적 특성이 비교적 강한 지역적 특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성분도 표준편차가 1.8207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군집내 지역간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방 문화유산자원·향토문화자원 등으로 특성화되는 성분4의 평균값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자연형 종합위락자원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성분8과 성분9의 경우를 보면 군집평균값이 각각 -0.2689, -0.2599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5-3. 제3군집 : 산업/해안형 (90개군)

제3군집은 수도권 서북부지역 및 남부일부지역, 서남해안권역, 중앙내륙지역 등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총 90개군이 전국적으로 산재하여 분포되어 있는 최대의 지역군이다. 지역유형의 특성구조를 살펴보면〈표5참조〉, 성분1의 경우 평균값이 -0.0954로 나타나 다른 군집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비교적 근소

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문화관광자원의 높은 분포도, 상대적인 지역규모성, 사회관광자원 및 관광편의자원 등의 요소들이 상대적으로 다소 열악한 수준에 있는 지역군으로 해석된다. 전원적 특성의 위락관광자원과 관련되는 성분3의 평균값은 -0.2968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이 부문의 관광잠재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의미에서 보면 위락관광자원의 특성이 스키장, 골프장, 운동휴양지구 등 인위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관광시설공급이 아직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문화유산자원 및 향토유산자원으로 특성화되는 성분4의 평균값은 -0.2132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 부문에서의 관광잠재력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해안과 관련된 특성을 지닌 성분5의 경우는 군집평균값이 0.298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해안관광자원적 잠재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지역군으로 해석된다. 또한 산업관광자원과 연관이 되는 성분7의 경우는 평균값이

<표6> 관광특성별 지역유형구분6)

군집	지역수	구성지역명	주요지역특성	군집명
1 군집	49	의왕시, 양주군,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청주시, 충주시, 청원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예산군, 포항시, 경주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산시, 김해시, 양산시, 창원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함천군,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 진안군, 고창군,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구례군, 장흥군	-종합관광성 우수 -문화관광자원성 우수 -교통편의성 낮음 -도시적 관광자원성 낮음 -공간지리적 내륙성 강함 -자연관광자원성 우수 (동굴, 온천 등)	문화 /내륙형
2 군집	28	대구시, 광주시, 대전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군포시, 화성시, 광주시, 이천시, 용인시, 여주군, 포천군, 가평군, 춘천시, 홍천군, 평창군, 인제군, 고성군, 진천군, 천안시, 아산시, 진해시, 밀양시, 전주시, 화순군, 영암군, 제주시	-대도시 주변지역에 주로 분포 -도시적 관광자원성 우수 -위탁관광자원성 우수 -지방문화유산·향토유산자원 풍부	위락/ 도시근교 형
3 군집	90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수원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오산시, 시흥시, 하남시, 파주시, 안성시, 김포시, 연천군, 양평군,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횡성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양양군,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음성군, 중평출장소, 보령시, 서산시, 논산시, 금산군, 연기군,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 당진군, 김천시, 영천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칠곡군, 울진군, 울릉군,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의령군, 함안군, 고성군, 남해군,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 목포시, 여천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고흥군, 보성군, 장진군, 해남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산업관광자원성 우수 -해안관광자원성 우수 -문화관광자원성 낮음	산업 /해안형

0.144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파수·목축업 등의 산업관광자원의 잠재력이 우수한 지역적 특성을 지닌 것으로 해석된다. 내륙관광자원으로서의 하천분포도도 이 지역군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6. 결론 및 시사점, 한계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지역별 관광특성은 문화/내륙형 관광지대, 위락/도시형 관광지대, 산업/해안형 관광지대의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등질의 속성으로 유형화된 지역별 관광특성

은 다소 논리적 비약은 있으나 잠재하는 등질속성의 관광루트(route)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관광개발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역의 잠재적 특성을 반영한 관광벨트를 설정하는데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강원남동지역과 충북북부지역권, 경북북부내륙지역을 잇는 지역대를 중심으로, 또한 충남내륙지역과 전남 및 경남내륙지역 등을 연결하는 지역대를 대상으로 해서, 문화-내륙형 관광루트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수도권남동권과 강원중부내륙지역을 잇는 지역대를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주변 위락-도시근교형 관광루트를 설정할 수 있으며, 지방 대도시

를 중심으로 한 위락·도시근교형 관광루트의 잠재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서부임해지역권을 중심으로 해서 북부 및 남부지역대를 잇는 수도권 산업·해안형 관광루트의 설정이 가능하며, 지역적으로는 우리나라 국토의 서남해안권역을 잇는 광범한 산업·해안형 관광루트의 설정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하여 개괄적인 측면에서 관광개발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내륙형의 지역대를 형성하는 축에서의 관광개발은 지역문화관광자원적 특성을 최대한 발굴하고 효과적으로 관광상품화하는 전략이 중요할 것이다. 이 경우 개발의 내용에 관해서는 당해 문화유적이 지니는 고유한 성격을 고려하고, 개발규모면에서는 당해관광자원이 지니는 잠재수요에 대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해서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지역권은 공간지리적 측면에서 내륙적 특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으며, 자연관광자원적 잠재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굴·온천 등의 자연관광자원을 중심으로 한 내륙형 관광지의 개발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내륙형 관광개발이라고 해서 명확한 개념설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한 관련시설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기반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종합관광적 차원에서의 정책방향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즉, 다양한 지역특성을 감안한 정책수립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들간에 상호관련성 및 보완성을 유지토록하여 종합관광지적 측면에서 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대도시 근교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위락·도시근교형의 관광축은 도시민들의 여가선용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위락형 관광공간개발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관광형태적 유형에서 보면 장기체류형이 아닌 단기 체류형 중심의 인근도시 지역의

관광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특성있는 관광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이 관광축은 지방 문화유산자원 및 향토문화자원 등의 지방문화관광성이 비교적 우수한 지역적 속성을 지니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향토문화의 특성화개발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산업·해안형 관광지대는 수도권 서북부지역 및 남부일부지역, 서남해안권역, 중앙내륙지역 등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최대의 지역군으로서, 해안관광자원성과 산업관광자원성 그리고 내수면 관광자원성이 타 지역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속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역군을 형성하는 축에서는 각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임해관광지개발과 산업관광의 육성 그리고 내수면 관광공간의 창출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한편 연구의 한계는 관광자원을 보다 다양화하지 못함으로써 지역관광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관광특성별 지역유형이 3가지 유형으로 너무 단순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점은 수집가능한 통계데이터의 추가확보와 다른 기법의 유형화분석을 통한 비교분석을 통해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또한 분석결과가 현실적인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실제적 검증작업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다면 연구의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는 추후 과제로 미루기로 한다.

참고문헌

1. 권용우 외, 1994, "관광자원에 대한 지리적 연구동향", 대한지리학회지, 제29권 제2호.
2. 김기영·전명식, 1994, 『SAS 군집분석』,

자유아카데미.

3. 김홍운·김사영, 1996, 『관광개발론』, 형설출판사.
4. 박석희, 1995, 『신관광자원론』, 일신사.
5. 엄영숙, 2000, 『자연관광지점의 특성분석과 방문자 편익가치추정』
6. 이정록, 1998, 『광주전남지역 관광자원 및 관광환경의 특성분석』
7. 한표한 외, 1995, 『도시지표의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시, 여수시 등과 같은 임해지역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해안지역에 입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문화관광자원과 관련된 특성이 강한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고, 산업해안형으로 분리된 지역 중에는 내륙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산업관광자원의 특성이 매우 높다는 데에 기인한다. 이는 보다 세분화분류작업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지역의 특성을 너무 세분화하는 것도 무리라는 점에서 차후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註

- 1) 권용우·김선희, 1994, 6., “관광자원에 대한 지리적 연구동향”, 대한지리학회지, 제29권 제2호, pp.201~214.
- 2) 군집분석은 개체간의 특성을 기초로 하여 개체간의 유사도(거리)에 근거하여 대상의 군집화를 시도하는 다변량분석의 한 기법으로서, 분석방법은 系譜的方法(hierarchical technique), 最適分離方法(optimization-partitioning technique), 稠密度에 의한 方法(density technique), 클럼핑法(clumping technique), 그래프를 이용한 方法(graphing technique)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김기영·정명식, 1994, 『SAS 군집 분석』, 자유아카데미, pp.3-5.
- 3) 최적분리 군집방법은 계보적으로 군집을 형성시키지 않고 관찰값들을 몇 개의 군집으로 구분시키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계보적 방법의 초기에 부적절한 분리가 일어났을 때 해결방법이 없다는 단점을 극복하고 있는 방법이다.
- 4) 패스트클러스터(Fast cluster)처리절차는 매우 많은 자료를 이용한 군집분석에 적합한 처리방식으로서, 잘 구분되지 않은 군집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작은 횟수의 반복 끝에 좋은 상호배반적 군집을 형성시키는 방법이다. ; 김기영·정명식, 상계서, pp37~49.
- 5) 한표한 외, 1995, 『도시지표의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pp77-78.
- 6) 문화내륙형으로 분류된 지역중에는 강릉